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옥단춘전

작자 미상 · 국문 소설, 애정 소설, 암행어사가 등장하는 세태 소설
2021년 6월 고2 · G202106H2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목차

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표지·목차	1쪽
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	2쪽
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	3쪽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	4쪽
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106H2-SR-REV20261022-R3

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암기 그림 1 · 또 살아 왔느냐 → 사공을 잡아 오다







또 살아 왔느냐 → 원혼이라는 위협 → 사공을 잡아 오다

1. 또 살아 왔느냐 [1]~[2]

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와 혈룡을 잡아 층계 밑에 꿇리고, 김 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친다. 「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.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?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!」.

2. 원혼이라는 위협 [3]~[4]

혈룡: 「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 했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다. 진희야, 들어 보라. 먼 길을 찾아와 영문에서 통기도 못 하고 지내다 연광정에서 너를 보고 반가워했는데,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며 대동강 사공을 불러 배에 태워 물속에 던져 죽이지 않았느냐. 물귀신 될 내 원혼이 오늘 또 네가 호유하기에 다시 보러 왔다.

3. 사공을 잡아 오다 [5]~[9]

비장: 「참말 같지 않사옵니다. 죽은 원혼이 어찌 사람 모습으로 오겠습니까? 그때 데리고 갔던 사공을 불러다 문초하시지요.

암기 그림 2 · 떠는 옥단춘, 능지가 되도록 → 형방도, 옥단춘도







떠는 옥단춘, 능지가 되도록 → [A] 형방의 문초 · 사공의 토설 → 형방도, 옥단춘도

4. 떠는 옥단춘, 능지가 되도록 [10]~[11]

복명 소리가 산천을 울린다. 연회장의 옥단춘은 사공이 매를 못 이겨 사실대로 불면 자기도 죄를 당하고, 그보다 귀신 아닌 서방님 이생원이 능지처참될 것을 생각하며 온몸을 떤다.

5. [A] 형방의 문초 · 사공의 토설 [12]~[13]

추상같은 엄명에 형방조차 겁을 내고 뱃사공들을 치며 다그친다. 「이놈들 들어 보라. 저번에 너희들은 저기 저 양반을 영대로 물에 던져 죽였느냐? 바른대로 고하라!」 사공들은 악착같은 악형에 못 이겨 여차여차하였다고 사실대로 토설하고 만다.

6. 형방도, 옥단춘도 [14]~[16]

김 감사가 다른 형방에게: 「이혈룡은 목을 베어도 죄가 남을 놈인데, 아까 형방놈은 저놈을 양반이라 불러 존대했으니 혈룡 놈과 죄가 같다!」 먼저 형방을 잡아 꿇리고, 분을 못 이겨 책상을 치며 호통한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1. 비장

뜻 감사를 따라다니며 돕던 무관. 「참말 같지 않사옵니다」라며 사공을 문초하자고 꾀를 낸다([5]). 출도 뒤에는 악을 권한 죄로 매를 맞는다([25]~[28]).

배경 裨將 · 비장

작품 속 쓰임 감사를 따라다니며 돕던 무관. 「참말 같지 않사옵니다」라며 사공을 문초하자고 꾀를 낸다([5]). 출도 뒤에는 악을 권한 죄로 매를 맞는다([25]~[28]).



2. 문초

뜻 죄를 캐물어 따짐. 김 감사는 사공을 「능지가 되도록 때려서」 문초하라 한다([11]).

배경 問招 · 문초

작품 속 쓰임 죄를 캐물어 따짐. 김 감사는 사공을 「능지가 되도록 때려서」 문초하라 한다([11]).



3. 복명

뜻 명령을 수행하고 결과를 아룀. 「사공 놈을 잡아왔소」의 복명 소리가 산천에 진동한다([9]~[10]) — 끝에서는 김 감사를 잡아 온 복명이다([30]~[31]).

배경 復命 · 복명

작품 속 쓰임 명령을 수행하고 결과를 아룀. 「사공 놈을 잡아왔소」의 복명 소리가 산천에 진동한다([9]~[10]) — 끝에서는 김 감사를 잡아 온 복명이다([30]~[31]).



4. 능지처참

뜻 가장 무거운 형벌. 옥단춘은 서방님이 이것을 당할까 전신이 벌벌 떨린다([10]).

배경 陵遲處斬 · 능지처참

작품 속 쓰임 가장 무거운 형벌. 옥단춘은 서방님이 이것을 당할까 전신이 벌벌 떨린다([10]).



5. 형방

뜻 형벌을 맡은 아전. 엄명에 겁을 내고 사공을 다그치다가([A] [12]), 혈룡을 양반이라 부른 탓에 자신도 꿇린다([14]~[15]).

배경 刑房 · 형방

작품 속 쓰임 형벌을 맡은 아전. 엄명에 겁을 내고 사공을 다그치다가([A] [12]), 혈룡을 양반이라 부른 탓에 자신도 꿇린다([14]~[15]).



6. 수청

뜻 기생이 높은 벼슬아치의 시중을 듦. 옥단춘이 이를 거역한 일이 김 감사의 사사로운 앙심이 된다([16]).

배경 守廳 · 수청

작품 속 쓰임 기생이 높은 벼슬아치의 시중을 듦. 옥단춘이 이를 거역한 일이 김 감사의 사사로운 앙심이 된다([16])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1.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

참조 구절 · 문항용 기호

(1) 비장이 사공을 문초하자고 아뢴다
(2) 사공들이 사실대로 토설한다
(3) 김 감사가 형방을 잡아 꿇린다
(4) 옥단춘이 끌려 나와 통곡한다
(5) 수령들이 갈팡질팡 도망친다

① (1)→(3)→(2)→(4)→(5)

② (2)→(1)→(3)→(4)→(5)

③ (1)→(2)→(4)→(3)→(5)

④ (1)→(2)→(3)→(4)→(5)

⑤ (1)→(2)→(3)→(5)→(4)

2.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 〔일반 · 인물 · 원 문항 35〕

① 이혈룡은 옥단춘과의 언약을 후회하였다.

② 김 감사는 이혈룡이 찾아올 것을 짐작하였다.

③ 비장은 김 감사의 호통에 이혈룡을 모함하였다.

④ 김 감사의 호의로 옥단춘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.

⑤ 옥단춘은 이혈룡이 자신의 당부를 듣지 않아 낙담하였다.

3. [A]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〔일반 · 소재 · 원 문항 37〕

참조 구절 · 문항용 기호

[A] [12] 추상같은 엄명을 내리매, 형방조차 겁을 내고 뱃사공들을 치면서 얼러 대기를, "이놈들 들어 보라. 저번에 너희들은 저기 저 양반을 영대로 물에 던져 죽였느냐? 바른대로 고하라!"

① 이실직고(以實直告)할 것을 다그치고 있다.

② 결초보은(結草報恩)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.

③ 상부상조(相扶相助)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.

④ 각골통한(刻骨痛恨)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.

⑤ 전화위복(轉禍爲福)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.

4. ㉠~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참조 구절 · 문항용 기호

㉠ [2]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?
㉡ [5] 죽은 원혼이 어찌 사람 모습이 되어 올 수 있습니까?
㉢ [10] 자기도 죄를 당할 것이고
㉣ [14] 그 형방 놈도 혈룡 놈과 죄가 같다!
㉤ [19]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

① ㉠은 김 감사가 이혈룡이 이미 죽은 줄 알았음을 드러낸다.

② ㉡은 비장이 원혼이라는 혈룡의 말을 믿지 않는 근거가 된다.

③ ㉢은 옥단춘이 매를 맞을 사공들의 처지를 동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.

④ ㉣은 혈룡을 양반이라 부른 형방에게까지 분풀이가 번졌음을 보여 준다.

⑤ ㉤은 옥단춘이 자신의 목숨보다 낭군의 처지를 더 안타까워함을 보여 준다.

5.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이혈룡은 붙잡히자 곧바로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밝혀 위기에서 벗어난다.

② 김 감사는 귀신이라는 말을 끝까지 믿고 사공들을 풀어 주라고 명한다.

③ 형방은 이혈룡을 동정하여 사공들을 문초하는 시늉만 한다.

④ 옥단춘은 사공이 토설하면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알고 있었다.

⑤ 어사또는 김 감사를 먼저 다스린 뒤 비장들에게 매질을 한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